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이기에 부활도 영적 부활로 설명해야

기독교의 부활론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만에 운명하고, 죽은 지 삼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다. 또한 나팔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 할 것으로 다시 살고(고전15:52) 죽은 자들이 무덤 가운데서 무른대소하고 부활한다(겔37:10~14)고 하였다. 또한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에 이끌려 예수가 강림할 때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 다 살아서 부활하여,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살전4:16~17)한다는 것이다.

소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설명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들이 심판 날에 모두 살아서 공중에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잘못 기술하고 있다.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나뇨(욥14:10~14)” “그들은 죽었은 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한 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사26:14)”

위에 적은 성경구절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른 소망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그 목숨과 바꾸겠느냐(막8:36)” 살아있는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강조한 말이다.

더욱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게 삼긴 바 되리라(고전15:54)”에서 “썩을 것이 썩지 않게 되고” 했는데 사

람이 죽어서 썩게 되지 않는 것을 말한 것이다. 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더욱 확실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고 뚜렷하게 밝혀놓고 있다. 또 “사람이 이김에 삼긴 바가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은 “죽은 자체가 이김(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을 이긴 이긴자)에게 삼켜져서 없어지고 만다”는 뜻이니 아예 죽음이 없어진다는 말이다. “맨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다(고전15:26)” “죄의 값은 사망이다(롬6:23, 약1:15)”

위의 내용을 보더라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復活)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지면서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성경적인 부활론

기독교의 부활론은 성경적인 부활론이 아니다.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므로 성경 상의 부활을 육의 부활로 보면 커다란 오류에 빠지게 된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육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 상의 부활은 엄연히 영의 부활을 의미한다.

성경말씀은 영적인 말씀이므로 죽은 사람들이 무덤 속에서 부활한다는 무덤은 세상의 무덤이 아니요, 죽은 사람의 영이 갇히는 영적인 무덤을 뜻한다. 영적 무덤이란 마음적 무덤이다. 즉 마음의 무덤이다. 마음의 무덤은, 생명이 죽으면 무덤에 묻히는 것처럼 죄가 생명을 해하므로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가리킨다. 마음속의

죄는, 피가 마음이므로 핏속의 죄요, (죄가 나라는 의식(야고보서 1:15))이므로 나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영적 무덤이다.

지금까지 죽은 사람의 영이 무덤 속이나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줄로 여기고 있다. 이 긴자 구세주께서는 죽은 자의 영은 살아있는 사람 속에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밝힌다. 이 말씀은 세계의 종교를 물거품 만드는 학설이다.

죽은 사람의 영은 죽은 사람의 마음이다. 죽은 사람의 마음은 죽은 사람의 피다. 죽은 사람의 피는 살아있는 후손의 피 속에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속의 피는 썩어서 없어진다. 피가 썩었다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죽으면 그 사람의 영이 하늘 나라에 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죽으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 즉 후손이나 형제 친척들에게 죽은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으므로 죽은 사람의 영은 살아있는 후손과 형제 친척들 속에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무덤이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사람을 일컬어 회향한 무덤 같은 인생(마태23:27)이라고 한 예수의 말은 이러한 의미에서 타당한 말이 된다.

이처럼 살아있는 사람 속에 죽은 자의 영이 부지기수로 들어 있다. 즉 우리 몸은 부모님의 피로 만들어졌으니, 부모님의 피, 할머니 할아버지의 피, 증조부모 피, 고조부모 피... 아담과 해와, 하나님의 피까지 다 들어 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이긴자가 나오게 되면 그 이긴자 몸속에 있는 조상의 영이 다



수니의
요가교실

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요가

“다 함께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지혜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이 하는 기도문을 듣고 놀랍니다. 이 기도를 하면 털끝만 한 마귀도 남아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청소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 혼자서 마귀를 죽여 왔지만, 이제는 승리제단 식구들이 다 함께 마귀를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승리제단 식구들은 보통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제단 식구들은 마귀를 죽이는 병정들인 고로 눈을 똑바로 뜨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마귀가 전멸되는 것입니다. 구세주 말씀 중에서^㉔

만성 통증을 날려버리자~

준비운동: 금강좌로 편안하게 앉아서 손목, 발목, 어깨의 힘을 뺀 상태로 부드럽게 풀어준다.

◎호능: 평행감각, 집중력, 힘업, 각선미를 아름답게.

동작① : 테이블 자세로, 손은 어깨 너비, 무릎은 골반 너비로 복식호흡으로 10초 유지.



동작② : 테이블 자세로 호흡을 코로 마시며 오른쪽 다리를 일직선이 되도록 멀리 뻗어 발끝을 올려준다. 내쉬는 호흡으로 복부 팔약근 엉덩이를 수축한다. 10초 유지. 좌우 3세트.

◎호능: 심폐기능과 호흡기, 기관지, 갑상선 호르몬을 원활히 하여 주고, 백혈자극으로 두통에 효과적, 오십견 예

방, 굳은 어깨와 등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

동작③ : 금강좌로 등 뒤에 각지를 끼고 꼬리뼈를 따라 팔을 늘려준다. 10초 유지. 5회.

동작④ : 내쉬는 숨에 그대로 상체를 앞으로 구부려 이마를 바닥에 대고 각지를 낀 팔을 어깨 위로 끌어올려 퍼준다. 편하게 호흡하며 10초 유지. 5회.*



격암유록 新해설
수정판 제71회

동해삼신(東海三神) 불사약(不死藥)은 정도령을 통하지 않고는 구할 수 없느니라

弓乙圖歌(二) 궁을도가

一家春風(일가춘풍)은 然後(연후)에
甘露如雨(감로여우) 나린다네
一心合力(일심합력) 원(家)가족이
行住坐臥(행주좌와)향천(向天)을
至誠感天(지성감천) 되올때에
弓乙世界(궁을세계) 들어가니
三豐兩白(삼풍양백)이곳이요
非山非野(비산비야)십승일세
天藏地秘(천장지비)십승지를
道人外(도인외)는 못찾으리
三神山(삼신산)을 찾으려면
心審默坐端正(심심묵좌단정)후에
一釣三鯉(일조삼어)뜻을알어
三峯山下半月船(삼봉산하반월선)을
于先(우선)먼저자보소

온 집안에 봄바람이 부는 것같이 화목한 후에야 감로가 비 오듯 내린다네.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 온 가족이 길을 오갈 때나 머물 떠나았을 때나 누울 떠나 언제 어디서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기를 지성(至誠)으로 행하여 하나님이 감동할 때 궁을세계(천국선경)에 들어가니 양백 삼풍이 이곳이요 세상의 산이나 들이 아닌 심승 세계(심승지)일세. 천지에서 감추고 숨긴 심승지(十勝地)를 도인(道人) 이외에는 찾을 수 없느니라.

삼신산을 찾으려면 마음을 살피 말없이 단정히 앉은 후에 일조삼어(一釣三鯉=낚시 바늘 하나에 세 개의 썩) 즉 마음 심(心)자의 뜻을 알아 삼봉산하반월선(三峯山下

半月船=세 봉우리의 산 아래에 반달모양의 배=마음 심)을 우선 먼저 찾아보소. 그 속에 유불선 합일, 삼위일체, 삼신산이 들어있다. 마음 심(心)자를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것이다.

都沙工(도사공)이 十勝(십승)일세
十勝地(십승지)를 알려거든
一字縱橫(일자종횡)찾자보소
億兆蒼生(억조창생)건지라고
十勝枋舟預備(십승방주예비)하여
萬頃蒼波風浪(만경창파풍랑)속에
救援船(구원선)을 띄우시니
疑心(의심)말고 속하타소
波濤上(파도상)에 놓히셨네

삼봉산하반월선(三峯山下半月船=마음 심心)의 도사공(都沙工)이 십승일세. 십승지를 알려면 한 일(一)자를 가로 세로로 한 것 즉 열 십(十=하나님)자를 찾아보소. 정도령이 억조창생을 고행(苦海)에서 건지려고 십승방주(十勝枋舟=구원선)를 예비하여 만경창파 풍랑 속에 구원선을 띄웠으니 의심 말고 속히 타소. 파도 위에 높이 섰네.

生死瀾門大開(생사옥문대개)하고
功德水(궁덕수)로 解渴(해갈)시켜
天使警報號甲聲(천사경보갑성)에
苦海衆生(고해중생) 빨리오소
無聲無臭(무성무취)上帝(상제)님은
厚薄間(후박간)에다오라네
부를적에 속하오소

晚時後悔(만시후회)통탄하리
一家親戚父母兄弟(일가친척부모형제)
손목잡고갓치오소 우리주님강림할제
迎候(영회)접해야안되나

정도령이 생사옥문(生死瀾門)을 크게 열어놓고 인류를 널리 구하려고 궁덕수(功德水=감로해인)로 메마른 심령의 갈증을 풀어주려고 하니 천사의 경보소리가 들릴 때 고해에 빠진 중생들이여! 빨리 오소.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오시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다 오라 하시네. 부를 적에 속히 오소(중입자생中人者生). 때가 늦으면 후회막급에 땅을 치고 통탄하리라(말일자사未入者死).

일가친척부모형제(一家親戚父母兄弟) 손목 잡고 같이 오소. 우리 주님 강림할 제 영접해야 아니 되나?

虛空蒼穹(허공창궁)바라보소
甘露如雨(감로여우)원말인가
太古始皇(태고시황)꿈을꾸던

不老草(불로초)와 不死藥(불사약)이
無道大病(무도대병)걸린 者(자)들
萬病回春(만병회춘)시키라고
편만조야나릴때도
弓乙外(궁을외)는 不求(불구)라네
東海三神不死藥(동해삼신불사약)은
三代積德之家外(삼대적덕자가외)는
人力(인력)으로 不求(불구)라네
至誠感天求(지성감천구)한다네

텅 비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소. 감로가 비같이 내리니 웬 말인가? 아주 오랜 옛날 진시황이 꿈에도 그리던 불로초와 불사약이 무도대병(無道大病)걸린 자들(중입자)이 타락한 인간을 회춘시키려고 밤낮으로 저 푸른 하늘이 꼭 차도록 감로를 내릴 때에도 궁을(弓乙=정도령) 외에는 구할 수 없다네.

동쪽 해우반도(동반도)의 삼신산(정도령)의 불사약은 삼대(三代)에 걸쳐 덕을 쌓은 집안 외에는 사람의 힘으로 구할 수는 없고 지성감천(至誠感天)이라야 구한다네.* 박명복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6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본부제단 032-343-9981~2

전국제단 및 해외제단 연락처

역곡제단 : (032)343-9981-2
수원제단 : (031)236-8465
안성제단 : (031)673-4635
부산제단 : (051)863-6307
영도제단 : (010)6692-7582
김해제단 : (010)7518-9981

대구제단 : (010)6530-7909
마산제단 : (055)241-1161
진주제단 : (055)745-9228
진해제단 : (055)544-7464
영천제단 : (054)333-7121
사천제단 : (055)855-4270

순천제단 : (010)3661-9025
정읍제단 : (010)8628-2758
군산제단 : (063)461-3491
대전제단 : (042)522-1560
청주제단 : (010)5484-0447
충주제단 : (010)9980-5805

양평제단 : (010)2945-8254
橫浜祭壇 : (045)489-9343
神戶祭壇 : (078)862-9522
下關祭壇 : (0832)32-1988
大阪祭壇 : (06)6451-3914

Sydney : (006)0415-727-001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